

순천시, 인구정책 발굴 위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출범

각계 각층 시민 50명 구성…위촉장 전달

시민주도형 사업 발굴 위한 특강·토론회 참여

순천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공모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출범식을 지난 4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개최한 위촉에서는 위촉장 전달과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 특강,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석 수석연구원의 특강에서 정부정책과 순천 인구구조 변

화, 자치단체들의 인구정책 사례 등이 논의됐다.

아동·청년·여성·중장년 4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토론회에서는 적극적 참여를 위한 분과별 SNS 소통 공간 마련, 인구정책 성공사례 공유 및 연구를 위한 스터디그룹 운영, 인구 증가와 감소 지역 현장방문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허석 순천시장은 "인구정책의 핵심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참여단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세대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2145명 증가한 28154명으로 전남 제1의 도시 달성을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담양군, 전국 청소년 랩 페스티벌 '대성황'



대상, 광주시 이지원 학생

가사문화의 산실 담양군에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랩 음악을 가사문화에 접목시켜 개최한 '제1회 전국 청소년 랩 페스티벌'이 지난 2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려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경연대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가 갈래인 가사시에 대해 그 문학적 의의를 되살리고 현대적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청소년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담양군이 주최하고 한국가사문화학술진흥위원회가 주관해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접수한 전국의 청소년 총 44팀 중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으며, 행사를 기념한 래퍼 브레이의 축하공연도 함께 열기를 더했다.

경연 이후 가사의 문학성, 라임의 예술성, 무대 매너를 중점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결정했으며, 광주시에서 참가한 이지원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부산시에서 참가한 곽대겸, 남호진 학생이, 우수상은 인천시 문다훈, 전남 화순군 윤정훈 학생과 담양군 전정환·모세훈 학생이, 장려상은 광주시 북구 유재승, 경남 함안군 배경도, 부산시 남구 김재연, 전남 함평군 이정우 학생에게 각각 돌아갔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주시, 착한카페 인증제도 운영 '호응'

여주시가 1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착한카페 인증제도'가 고객과 영업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착한카페'란 고객이 텀블러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음료 값을 할인하거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카페에 선정되면 인증서와 함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착한카

페 경진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착한카페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여주시 도시미화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화순군 청년협의체, 소통·역량 강화 워크숍 성료



화순군은 2일 도곡 원네스 스파리조트에서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기 청년협의체 소통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 위촉된 제2기 화순군 청년협의체 위원 간의 소통과 역량 강화, 1기 협의체 위원의 멘토링과 소통·화합의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청년협의체 위원으로서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청강하고 '제2기 협의체 임원단 구성을 위한 퍼실리레이션', 화순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공유했다.

제2기 화순군 청년협의체(위원 33명)는 지난달 8일 발족했다. 일자리, 인력양성, 청년문화, 청년복지 4개 분과를 나누어 구성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청년 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성 있는 청년 정책 발굴, 군에 제안하는 등 군과 청년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의 장구 역할을 담당한다.

강재홍 제2기 화순군 청년협의체 대표는 "제2기 청년협의체가 청년 정책에 큰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지역 청년의 혼란 해결에 앞장서 우리 지역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은 "청년으로서 주체적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해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역 청년들과 호흡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흥군-재인천향우회 귀향귀촌 상생 업무협약 체결



고흥군은 지난 1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재인천 고흥군 향우회와 '고흥사랑 귀향귀촌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출발과 함께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 순천향우회와 더불어 5번째 고흥사랑 협약식을 정준희 향우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그동안 귀향귀촌을 위한 상생협

약, 대도시 찾아가는 상담점 운영, 농수특산품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제2의 인생은 고향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지역출신 청년 유입을 위해 내시랑 고흥기금 100억원을 조성, 청년 U-turn 플러스 정착장려금, 빙집수리비, 부모와 아이 고향탐방, 청년 기업 승계, 고흥사랑 청년 사관학교 운영, 청년창업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한윤섭 기자

문(전체 15%)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태블릿 PC를 활용해 현장에서 조사내용을 바로 전송하고, 통계 상황실에서 조사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전자면접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조사자 편의 개선은 물론, 통계 데이터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함으로서 통계자료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나주시는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모든 가구·주택을 대상으로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 주관으로 시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내년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각종 표본률 제공

을 위해 가구·주택 등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대상은 올해 11월 1일 0시 기준, 관내 빙집을 포함한 6만2천 여 가구로 △거처종류 △빙집여부 △거주기능 가구 수 △농립어가 여부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조사원 현장 확인, 직접방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넓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쟁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